

순천시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위 출범

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11명 다음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올 상반기 내 후보지 1곳 결정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에서는 하루 200t의 폐기물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해왔는데, 왕조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광양, 여수 등과 함께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논의했지만 각 지자체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독립적인 행보에 나

섰다. 또한 지난 2021년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했음에도 건립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는 순천시는 시간이 지나 매립장 건립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조사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시는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정해 2029년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목표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입지계획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라는 민생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할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 새단장...여문지구 랜드마크로

조경수 식재 도심 속 정원 재탄생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의 삭막한 교통섬(사진)이 도심 속 정원으로 새 단장을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여문지구 도심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 조경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터리 조경사업은 로터리 내 나선형 조

경 구조물을 설치하고 꽃과 잎이 아름다운 치자나무, 금목서, 남천 등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입체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조경수 식재가 제한되는 구역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조경 자갈을 깔아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했던 로터리를 도심 속 정원으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의회 앞 로터리는 여문지구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됐다.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명현 여수시 산림과장은 "조경 사업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 조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백운산 고로쇠 본격 출하

소포장 용기 도입·QR코드 삽입

광양시가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채취·판매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3월17일까지 2개월에 걸쳐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은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구입 가능하다.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지역 백운산의 고로쇠나

무에서 채취한다. 날씨에 따라 고로쇠 수액 채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봄 숲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경칩 무렵 채취가 시작된다. 고로쇠에는 미네랄과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40배 더 함유돼 있어,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고로쇠 수액을 구입하고 있으며, 광양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들은 채취한 수액을 정제과정을 거

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소포장(500ml) 용기를 도입하고, 정제일자과 지리적 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제장 시설, 기계 등을 대상으로 채취 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독과장은 "고로쇠 수액은 다량의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특유의 달콤함으로 맛이 좋고 먹기 좋으며,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설 선물은 '보성물'에서 27일까지 특별 할인전

보성군은 민속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 기간에는 보성물 전 품목을 10%에서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2000원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지며 상품 후기 작성 시 300원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보성물'에는 125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청정자연에서 키운 녹차, 기위, 울벼쌀, 벌교 조약 등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농어가의 정성을 듬뿍 담은 '보성물'을 2종의 꾸러미 선물 세트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보성물은 지난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2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초등돌봄 '광양아이 키움밥상' 제공

겨울방학 학교 밖 아동에 점심

광양시 다음달 28일까지 방학기간 동안 학교 밖 초등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광양아이 키움밥상' 사업(사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점심 해결 등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식단은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들어 광양아이키움센터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부모는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광양시의 초등돌봄 특화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밥상이 제공되는 광양아이키움센터와 돌봄공동체는 ▲광양읍 5개소(송보7차, 덕례수시아, 덕진광양의봄, 장덕1차, 남해오네트)와 ▲중마동 6개소(농협문화센터, 성호2-1차, 송보5차, 송보6차,



스위트엠, 마동빛) ▲광영동 1개소(브라운스톤가야) ▲금호동 1개소(금호도서관) 총 13개소로 약 340여 명의 어린이가 중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승화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7년전 전남대·여수대 통합때 약속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돼야"

주철현 의원 신년 기자회견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는 17년 전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시 정부와 전남대의 약속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에 과거 여수대를 내주면서 얻어낸 여수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의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궤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함께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는 정부 약속을 믿고 여수대를 없애는 데 동의한 여수시민들의 양보할 수 없는 천금 같은 권리면서 정부도 이행 책임을 인정한 책무"라고 못 박았다. 주 의원은 "나 몰라라로 일관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원 설치를 위해 전남대, 여수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에 여수 시민이 17년간 쌓아온 희생과 아픔의 대가인 만큼 김영록 전남지사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해 여수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용역예산을 확보해 '고속도로 없는 도시'의 오명을 벗을 기회가 마련된 점과 2000억 규모의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의 2024년 터기방식 공사 발주, 여수산단 대개조 사업 예산, 해수부 예산으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 등을 업적으로 제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정원박람회 영업시설 운영자 추가 모집

식당·카페·편의점...입찰 자격 완화

(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2023정원박람회의 식음·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하는 식음·판매시설은 총 13개소로, 식당 3개소, 카페 5개소, 편의점 5개소다. 조직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제안 가격을 감정평가액 대비 30%만 반영하고, 매출 수수료도 10%로 책정하는 등 운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5년간(2018~2022년) 해당분야의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자(매출액 7천만원 이상)로 완화했다. 박람회 기간 중 운영될 식음·판매시설은 남녀노

소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선정했으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식당, 카페 분야 운영희망자는 오는 27일 조직위로 직접 방문해 입찰 신청해야 하며, 편의점은 온비드 누리집을 통해 25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신청해야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순천의 맛과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식음·판매시설 운영자 모집에 정원을 사랑하는 순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서 접수 등 기타 운영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원박람회 누리집과 순천시 누리집 및 온비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박람회 조직위 수익사업부(061-749-2887~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곡성군, 11개 읍면 순회 새해 농업인 교육

곡성군이 오는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해 농가 소득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 교육과 공익직불제 등 주요 농업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최근 농업 문제점 등을 연계한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11개 읍면 순회 교

육으로 실시된다.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도와 교육 수요가 반영된 식량작물(친환경 벼, 옥수수, 콩), 채소(멜론, 토란, 고추), 과수(체리, 블루베리, 매실, 감, 사과, 배), 양봉 4개 분야 1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체 및 외부 강사를 활용해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내 농업인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과정별 교육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구례 10개 초등학교 올 입학생 106명 3명 이하 2개교...1개교는 아예 없어

유치원 입학생도 52명 불과

구례 지역에도 2023학년도 신입생을 단 1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생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병설 유치원 입학생이 1명도 없어 휴원에 들어가면서 내년 역시 입학생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에 따르면 구례군 10개 초등학교 올해 입학 예상 인원은 총 106명으로 입학생이 3명 이하인 곳이 2개교이며 7명 이하가 4개교로 나타났다.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는 1곳이었다. 반면 10명이 넘는 곳은 구례읍에 2곳과 마산면 1곳 등 3개교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초등학교가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입학 예정 인원도 52명에 불과해 향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구감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다.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203인 구례군은 인구 감소 대응과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유학타운조성과 청년하우스건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육아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례교육지원청 초등 관련 장학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피할수 없는 농촌지역 현실이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